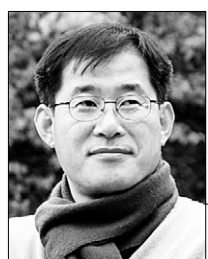


4월 5일, 북한의 로켓 발사로 국제사회에는 큰 파장이 일고 있다. 미사일이나, 인공위성이냐로 부터 시작된 논란은 '미사일주권론' 까지 언급되고 있다. 일본은 태평양전쟁 전야와 같은 분위기로 러시아와 중국의 반대속에 유엔안보리에서 대북제재 결의를 추진 중이다.

발사 당일, 북한은 운반로켓 '은하2호'를 통해 쏘아올린 위성 '광명성 2호'가 성공적으로 지구의 타원궤도를 돌고 있다고 보도했다. 하지만 내·외신 다수는 발사체가 궤도 진입속도를 내지 못해 추락했다는 설을 더 신뢰하고 있다.

북한의 로켓발사는 주민들이 기아선상에서 굶어죽는 가운데, 국가로서의 제 기능을 하지 못해 온 북한내부에 권력재편성과 국민적 통제력을 재정비하려는 내부효과가 우선 목적이거나 분석이 지배적이다. 이것은 과거와 달라진 이명박 정부 정책으로 남북한의 정치 군사적 긴장에 대응하기 위해 북한내부를 관리해야한다는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했고, 더욱이 9월 열린 제12기 최고인민회의에서 김정일 국방위원장을 재추대와 내각이 새롭게 구성되는 정치일정을 염두에 둔 것으로 보인다.

북한은 이번 위성발사를 '경제발전에 필수적인 실용위성'이라고 보도했다. 자체기술개발로 인공위성 발사체를 보유한 나라는 세계에서 10여개국 뿐이다. 이번 로켓발사로 북한은 세계적



불자 세상보기

유정길
평화재단 기획위원

우주로 쏘아올린 백만톤의 식량

인 첨단기술보유국가의 이미지를 갖게 됐다. 북한은 향후 그 기술을 해외에 판매하려는 경제적 효과까지 기대하고 있었다고 보여진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북한은 과거 300만명 이상이 굶어 죽었다. 작년에는 다시 '좋은벗들'이나 'WFP'가 북한의 긴급한 식량위기사황의 해결을 위해 국제적 지원을 호소했었다. 물론 가을 풍년으로 인해 예상되는 어려움이 부분적으로는 해소됐지만, 비참한 상황은 올해도 지속되고 있는 실정이다.

보도에 의하면, 이번 로켓발사에 약 3억달러가 소요됐다. 이는 작년 여름기준으로 국제시장에서 100만톤 이상의 쌀을 구입할 수 있고 이 정도 양이면 북한주민이 겪고 있는 식량난을 1년간 해결할 수 있는 분량이다. 그동안 남북 화해와 평화를 위해 노력해온 단체들로서는 수백만 명이 굶어죽는 상황에서 체제를 우선시한 북한 정부의 정책을 이해할 수 없다. 과연 '인민의 국가'를 만들려는 북한이 '인민의 죽음'을 아랑곳하지 않는 이 역설을 어떻게 이해할 수 있단 말

인가. 정권의 논리로 보면 이해할 수 없기만 한 것은 아니지만 어떠한 정부라도 국민의 목숨, 사람의 목숨이 우선해야 한다는 것은 시대를 넘어 자명한 사실이다.

이러한 북한의 행위는 결국 동아시아국가들 내부의 보수화를 강화시키고 군비경쟁을 가속화시켜 남한과 일본의 군비증강을 도모하게 만들 것이다.

정말 심각히 걱정되는 것은 북한의 정부가 강성대국이라는 정권안보를 그 기준으로 두고 있다는 점이다. 그러는 사이에 북한주민들의 대량 아사는 올해도 계속될 것이다. 또한 북한의 로켓 발사에 대해 일본과 한국은 과도한 안보불안을 조성하고 있는 점도 문제다. 일본은 로켓을 요격하겠다는 군사적 행동까지 취하려고 했고 이를 통해 군비증강을 피하고 있다. 한국은 '미사일 주권'을 비롯해 대량살상무기확산방지구상(PSI) 전면참여나 미사일방어(MD)체제참여와 같은 군사적 해결을 도모하려고 해 우려스럽다.

전세계는 점차 긴장완화, 군비감축으로 가고 있는데 중국, 남한, 북한, 일본 등 유독 동북아국가들이 군비증강 경쟁에 더욱 깊이 빠져 들고 있다는 점이 화해와 평화를 위해 활동하는 사람들의 큰 걱정거리가 아닐 수 없다.

본 칼럼은 본지 편집 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현대불교 불교의 생활화·현대화·세계화

회장 : 노대행 발행·편집인 : 박혜월 인쇄인 : 김승호

110-734 서울특별시 중로구 안국동 175-87 안국빌딩 6층 대표전화(02)2004-8200 / 대표팩스(02)737-0697

편집국 (02)2004-8234-55 FAX (02)737-0698

광고국 (02)2004-8213-7 FAX (02)737-0696

인터넷 실시간 현대불교 www.buddhanews.com

불교포탈 부다피아 www.budhapia.com

온라인광고 애드부다피아 http://ad.budhapia.com

온라인서점 예시아온 www.yosiamun.com

현대불교 지사안내

부산지사 : (051)632-0064
경남동부지사 : (055)353-1196
경남남부지사 : (055)746-9778
충청지사 : (043)732-5560
전북지사 : (063)910-5199

대구지사 : (053)768-8008
경남서부지사 : (055)355-7472
광주전남지사 : (062)384-3009
영주지사 : (054)634-3429

구독신청·배달안내 (02)2004-8212 / 구독료: 1개월 5천원·영구 62만5천원
1994년 10월 15일 창간 등록번호: 다-3379 / 본지는 신문윤리강령 및 그 실천 요강을 준수한다

사부대중 테마칼럼

4월의 테마-감사합니다

달리는 것과 걷는 차이가 너무도 다르다는 것을 알았다. 마라톤을 시작하고부터다. 컴퓨터에서 글을 쓰다보면 모니터를 응시하는 시간이 길 수밖에 없다. 연구 주제를 머리에 담고 화두 풀듯 하다보면 육체를 버려두는 경우가 허다하다. 고장 난 몸이 빠져거기다 시작하자 마지못해 달리기 나왔다. 그 러자 달리기라는 또 다른 세계가 펼쳐지고 그곳 사람들과 인연 맺었다.

그들은 땀방울을 신앙처럼 받든다. 한국불자마라톤 회원들이다. 그들 앞에서 '건강을 위해'라고 말했지만 어색한 메아리가 됐다. 마라톤이 불자들은 건강과 불사를 연결시키려는 마음이 강했다. 장상에 가사를 두른 승지 스님이 커다란 반호표를 달고는 빠른 속도로 달려 나간다. 이색적인 풍경을 지켜보는 사람들에게 손을 흔드신다. 자 연스런 포교이다. 해운 스님은 101km를 뛰는 울트라 마라톤에 참가했다. 부산 태종대에서 임진각까지 537km를 종단한 회원도 있다. 폴코스(42.195km)

'주선일미'... 내 몸이 반야용선

100회 완주를 목표로 뛰는 분도 있다. 살 수 있도록 해주는 땅과 공기의 고마움을 잊고 있듯이 우리의 몸도 그러 하지 돌아보자. <반야심경>에는 몸을 주제로 무-안이비설신의가 있다. 연결해보자. 색이라는 육체가 공을 만나 반야로 거듭나는 공식을 보여준다. 이 때 몸은 피안에 이르러 하는 반야용선이 된다. 육체에 대한 대승적 마음가짐이 필요하다.

과거 육체가 하던 일들을 기계가 대신하면서 현대인의 몸은 운동 부족에 허덕인다. 움직이지 않는 시간이 너무나 길어졌다. 더 나아가 인간의 생각까지 기기가들이 대신한다. 첨단 문명을 거부하지 않더라도 건강한 몸을 유지해야 한다. 운동과 인연 맺어야 하는 이유이다. 그리하여 건강한 몸을 보살정신에 적용해보자. 번뇌 덩어리를 미워할 것이 아니라 반야용선의 육신을 고마워하고 사랑해야 한다.

선식자들이 전식득지(轉識得智)라는 말씀을 하셨다. 심신의 번뇌 요인들을 오히려 지혜로 바꾸려는 것이다. 본능을 따르면 번뇌 덩어리 육신이지만, 부처님을 따르면 관음보살의 법체인 것이다. 하루에도 수십 번 자신의 몸에 감사해도 된다. 총무원장이셨던 법장

스님은 열반하기 전 한국불자마라톤 불자들이 위해 주선일미(徒禪一味)의 취호를 하사하고 땀방울도 수행임을 강조했다. 마라톤 불자들의 자긍심이 매우 커보였다. 나도 서브쓰리(sub-3)니 즐린(즐거워 뛰자)이니 하는 용어들 을 새롭게 배워야 했다. 땀이 힘든 만큼 클럽 법우들의 우의도 끈끈했다. 초보자들을 위한 배려가 오히려 부담스러울 정도다.

천리길도 한 걸음부터라는 생각이 폴코스과 인연 맺었다. 근살 대신 정강이에 근육이 불기 시작했다. 달리는 일이 즐거워졌고, 부처님 사업을 할 수 있는 기량을 더욱 높였다. 클럽 법우들이 고맙고, 내 몸에 감사함을 느낀다. 또 다른 불자에게 자신의 몸이 반야용선임을 알려주고 싶다.

한국불자마라톤 동호회
cafe.daum.net/hsjung1959



최승순
불교문화연구원
연구교수

빙의(귀신병)으로 고통받는 많은 중생... 그 고통을 함께합니다

빙의치유
●영을 직접 불러 누구인지? 무슨 원한인지? 천도

전생체험
●원통한 인간의 인과 응보와 원인을 찾아 업장을 소멸하고 사업자, 상업자에게 사업성취를... 원인을 악질증상 등을 좋은 운으로 돌릴 수 있습니다.

치유가능한 증상들
●빙의(귀신병)퇴마, 우울증, 대인공포, 불면증, 게임중독, 성적향상 등등... 원인을 불치병... 하는 일마다 안풀리는 분은 사주를 바꾸세요. 산소수맥

빙의, 퇴마, 전생, 최면치료 (최면 시술사 과정 모집)
최면 수련을 통해 노력만 하면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 교육기간 : 본인이 원할 때까지 ◇ 교육비용 : 200만원 ◇ 최단기 집중교육도 가능
◇ 스님이나 포교사님 현오스님만의 특별교육도 가능(본인이 원할 때 추가비용 별도)

"2009년 3월 3일 MBC TV 특종 놀라운 세상 「귀신씩인 나무의 실체」 편 출연"

서울지부 : 보광사
H·P 016-9511-0840
●서울교육 : 연중무휴

부산본부 : 부산광역시 북구 화명동 1388-8 (부산 지하철 2호선 화명역 2번출구 전자랜드 후문 앞)
☎ 051)342-0666 / 364-5586
H·P 010-5656-3915 / 010-3056-3315
●부산교육 : 연중무휴

성 불 사 퇴마사 현오 합장

“자연이 준 최고의 선물” 천 / 년 / 초를 아십니까?

천년초는 봄, 여름, 가을, 겨울 4계절을 노지에서 자연상태 그대로 자라는 다년초 식물로 혹한의 영하 20°C에서도 살아나는 강인한 생명력을 가진 우리나라에서만 자생하는 토종 선인장입니다. 특히, 어떠한 병충해에도 죽지 않고 농약, 제초제, 화학비료를 일체 사용하지 않는 무공해 자연식품이며 “자연이 인간에게 준 최고의 식물”이라 불릴만큼 어떤 식물과도 비교할수 없는 높은 성분을 함유한 소중한 우리의 자원입니다.

직접 몸으로 느껴 보십시오.
한겨울 영하 20°C의 혹한 속에서도 살아나는 강인한 생명력의 천년초! 천년초의 놀라운 생명에너지를 직접 체험해 보십시오.
*천년사랑에 사용하는 천년초는 유기농 천년초 100%를 사용하 만들니다.

천년사랑 무료샘플신청 02)780-3989
(천년초 책자와 농축액 2일분을 무료로 보내드립니다)